

박찬호, 통산 1,500 K 돌파

(탈삼진)



美프로야구 사상 161번째...시즌 7승

‘코리아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미국프로야구 통산 161번째 탈삼진 1천500개를 넘어서며 시즌 7승 달성에도 성공했다.

박찬호는 26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친정팀 LA 다저스와 방문경기에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6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 안타 10개를 맞고 3실점한 뒤 4-3으로 앞선 7회부터 앨런 엘브리로 교체됐다.

샌디에이고는 9회 3점을 도망가며 7-3으로 승리했고 박찬호는 지난 7일 필라델피아

전에서 6승을 올린 뒤 세 번째 도전전에 2연패를 끊고 값진 승리를 따냈다.

아울러 서재응(필라델피아·7연패), 김병현(콜로라도·2연패) 등 최근 승리없이 9연패에 빠진 한국인 빅리거 중 첫 승을 올려 말형의 이목을 끌었다.

투구수는 92개, 스트라이크는 55개였다. 직구의 힘이 떨어져 안타를 많이 맞았지만 타선 지원 덕에 승리 요건을 안고 내려왔다.

7승6패, 평균자책점은 4.64에서 4.63으로 약간 떨어졌다. 볼넷은 없었고 삼진은 3개를 잡았다.

경기전까지 1천498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던 박찬호는 이날 3개를 더해 탈삼진 1천501개의 대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박찬호는 3-2로 앞선 6회 2사 1.3루에서는 우익선상 안쪽에 절묘하게 떨어지는 적시타로 타점을 추가하며 홀로 복치고 장구쳤다.

샌디에이고는 6연패 중인 다저스를 상대로 3회 마이크 캐머런이 선제 중월 투런포를 작렬시킨 뒤 2-이던 6회 애드ريان 곤살레스가 1타점 우선상 2루타를 터뜨리며 승기를 잡았다.

샌디에이고는 3연승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켰고 다저스는 7연패에 빠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선우도 잘 던졌는데...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선우(29·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실점 이내 투구)로 잘 던졌으나 시즌 6승에는 실패했다.

콜로라도 로키스 산하 트리플A팀인 스프링스의 선발투수 김선우는 26일(한국시간)

테네시주 허셜 그리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내슈빌 사운즈(밀워키 산하)와 방문경기에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6이닝 동안 안타 6개, 볼넷 3개를 내주며 2실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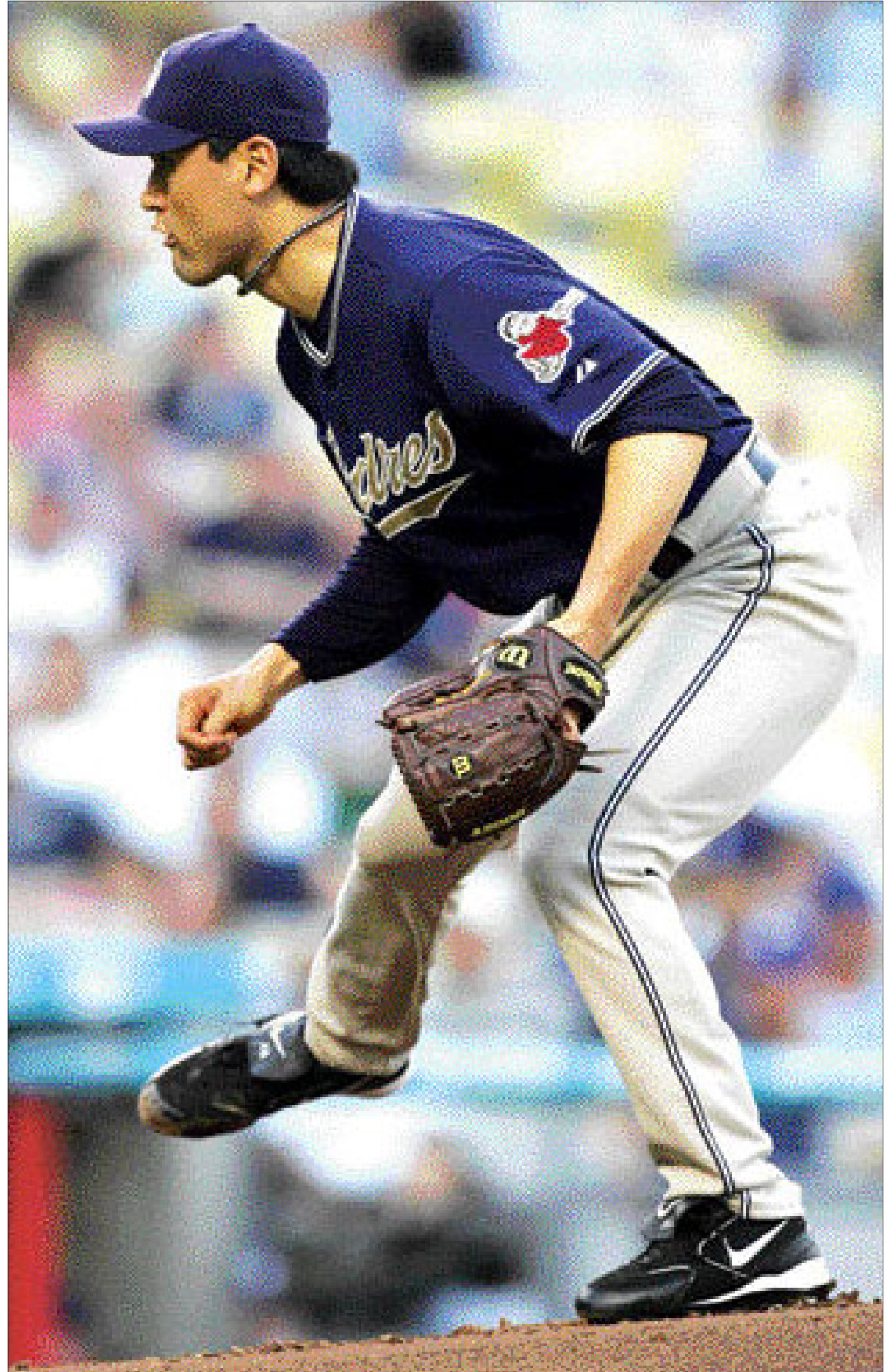
김선우는 1회 2루타 2개와 폭투로 2점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안정을

퀄리티 스타트 불구 팀 패배로 6승 실패

찾고 6회까지 잘 던졌다.

김선우는 팀이 4-2로 앞선 상황에서 교체됐으나 후속 투수가 점수를 허용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스프링스는 4-5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박찬호가 26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친정팀 LA 다저스와 방문경기에 선발로 나서 1회에 호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팡! 홈런 30호

이승엽 “역대 팀 용병기록 바꾸겠다”

시즌 30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일본프로야구 양대리그 홈런 1위를 질주 중인 이승엽(30)이 역대 요미우리 외국인 선수가 갖고 있던 각종 팀내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외국인 선수가 요미우리에서 세운 역대 최다 홈런은 45개(테리 로즈), 타점은 112개(워렌 크로마티)다.

일본 언론은 26일 인터넷를 통해 전날 히로시마전에서 시즌 30호 아치를 터뜨린 이승엽이 한일통산 400호 홈런에 2개를 남겨뒀다며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8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투혼을 불사르는 등 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이 뽐내지 않았다.

최다홈런(45개)·타점(112개)

“현재 페이스면 충분히 경신”

이승엽은 요미우리의 역대 외국인 선수로도 30홈런에 가장 빨리 도달했으며 센트럴리그 다른 구단 역대 용병을 살펴보자면 1978년 웨인 개릿(한신), 1985년 랜디 바스(한신) 등 두 명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엽은 89경기에서 30개의 홈런을 터뜨려 시즌 50개 홈런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앞으로 남은 56게임에서 20개를 추가

하면 된다.

무라타 슈이치(요코하마·22개) 페르난데스(라쿤·21개) 등 양리그 2위 또는 1위와 격차가 10개 가까이 나면서 그의 50홈런 달성 가능성은 일본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역대 요미우리 용병 중 최고는 크로마티다. 이승엽에 앞서 19년전인 1987년 개막전 4번 타자를 맡았던 외국인 선수다.

그는 1984년 35홈런, 93타점으로 요미우리 주포로 자리매김한 뒤 1985년 112타점으로 팀내 최다, 1986년에는 37홈런 98타점을 역시 팀내 최고로 활약하며 이름을 걸었다.

이승엽이 지금 페이스만 보여준다면 크로마티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필라델피아 투수 매드슨

1이닝에 폭투 4개 진기록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우완 선발투수 라이언 매드슨이 1이닝에만 폭투를 4개나 범해 메이저리그 타이기록을 세웠다. 매드슨은 26일(한국시간) 시터즈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4-1로 앞선 3회 선두 루이스 곤살레스에게 2루타를 맞은 뒤 후속 채드 트레이시 타석 때 폭투 2개를 범해 1점을 헌납했다. 이어 무사 1루와 2사 2루 상황에서 한 차례씩 포수 미트와 전혀 동떨어진 볼을 던져 체면을 구겼다.

스포츠통계회사인 엘리어스 스포츠뷰로에 따르면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1이닝 폭투 4개를 범한 투수는 ‘너클볼러’ 필니크로(애틀랜타)로 27년 전인 1979년에 진 기록을 남겼다.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스티블 블래스’ 증후군을 앓은 세인트루이스의 릭 앤킬은 지난 2000년 애틀랜타와 디비전시리즈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에 5개의 폭투를 범하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한 경기 최다 폭투 기록은 6개다.

프로야구 8개구단 한목소리

“용병들 힘내라 힘”

후반기 활약 여부 큰 변수 판단

“제발 데려온 값만 해다오”

올 시즌 프로야구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신입 용병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8월 이후 건너온 선수들은 포스트시즌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구단들은 필요에 따라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교체를 마감했다. 더 이상 히든카드를 없는 셈이다.

5위 KIA는 극심한 타격부진에 시달리던 마이크 서브넬을 보내고 이달 초 빅리그 출신 우타자 스캇(사진)을 데려왔다.

지난 시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59경기에 출전한 스캇은 정확성과 장타력을 고루 갖췄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4경기에서 16타수 2안타를 때리는 등 몸이 덜 풀린 모습이다.

롯데는 그간 부진했던 외국인 타자 브라이언 마이로우를 퇴출하고 메이저리그 출신 중장거리 타자 존 갈을 영입, 28일 LG 전부터 내보낼 계획이다. 7위에 머물고 있는 롯데는 존 같이 중시 타선에서 상승효과를 내며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반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을야구’를 향한 발걸음이 바쁜 6위 SK 또한 지난 달 중순과 이달 초 외국인 투수를 잇따라 영입했다.

우완 정통파 제임스 세라노는 지난 25일 현대전에 등판해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모두 7경기에서 나와 2승(2패)을 올렸다. 방어율은 3.99.

마무리 호세 카브레라 5경기에서 방어율 2.25로 2세이브(1



패)를 쌓은 가운데 SK는 카브레라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퇴출되기 전에 잠시 보여줬던 활약을 다시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다.

LG 또한 투수 아마우리 텔레마코를 내보내고 미국 트리플A 출신 우완투수 라이언 베로커를 데려와 최하위 탈출 등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서정환 KIA 감독은 “후반기 가장 큰 변수는 주전들의 부상과 신입 용병들의 활약 여부에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